

KOSI 중소기업 포커스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책임작성 | 정은애 연구위원, 남윤형 수석연구위원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소상공인 부실 현황 진단
3.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추이
4. 정책 시사점

| 요약

■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급등과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경제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정상 회복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실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부채로 경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 부실화 정도 및 유형별 현황, 금리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변화를 파악하여 부실 소상공인 예방과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지속 기간, 업종, 매출액 규모, 신용 구간, 소득구간별 부실·한계 소상공인 비중 등 현황 파악
-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별 한계 소상공인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연착륙 지원 방향 마련

■ 부실 지속 기간별 소상공인 현황

-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 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 수는 24만 9,342개이며, 그 비중은 39.5%임

- 부실로 진입한 후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이며, 부실 지속 기간이 길수록 부채액이 증가함
 -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

■ 유형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 (업종별) 숙박업과 제조업의 부실과 한계 비중이 높으며 부채액도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매출액 1억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1억 원 이상부터 그 비중은 감소하나 평균 부채액은 큰 폭으로 커짐
- (신용등급별) 사업자 신용도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감소하나 평균 부채는 증가함
- (추정소득 분위별) 추정소득 구간 1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부실 및 한계 비중과 평균 부채액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에서 부실 및 한계 비중과 평균 부채액이 높음

■ 물가 및 금리 변화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추이

- (시나리오 1: 베이비스텝)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가 2.75%로 인상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7.7%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8.1%로 추정됨
 - 베이비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4만 2,187개, 한계 소상공인은 121만 1,204개로 추정됨
- (시나리오 2: 빅스텝)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로 인상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2%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8.6%로 추정됨
 - 빅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로 인상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6만 4,123개,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 2,751개로 추정됨

- (시나리오 3: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25%로 인상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6%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9%로 추정됨
 - 자이언트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8만 5,010개,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 2,790개로 추정됨

■ 정책 시사점

-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업종, 매출액 구간, 신용도, 추정소득에 따라 부실·한계 비중 및 부채 크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특성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실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금리 충격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들도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
 - 금리와 물가 변수만 고려하였음에도 금리 1%p 증가 시 약 8~12만 사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사업자들도 부실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지원으로 부실 상태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부실·한계 소상공인의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자보상배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나,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통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임
 - 영업비용 중 소상공인에 크게 부담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1. 서론

■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급등과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경제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와 생활비 부족분을 지원금과 대출로 충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실 소상공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함
- 또한 유동성 급증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환율, 물가,* 금리상승**은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물가) 원자재·에너지·달러 가치 상승 → 물가 상승 → 상품가격 상승¹⁾/비용 증가 → 소상공인 수익 감소²⁾ → 부실 소상공인 증가

** (금리) 기준금리 증가 → 대출금리 증가 → 소상공인 가계 부실 증가

■ 소상공인의 정상 회복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실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부채로 경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부실 소상공인들은 다시 대출로 경영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할 것으로 보임
- 부실 상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 부실화 정도 및 유형별 현황, 금리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변화를 파악하여 부실 소상공인 예방과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지속 기간, 업종, 매출액규모, 신용구간, 소득구간별 부실·한계 소상공인 비중 등 현황 파악
-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별 한계 소상공인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연착륙 지원 방향 마련

1) 상품가격 상승은 소상공인 수익상승 요인이거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가격 전가 능력이 떨어지고(강창모·전상경, 2021), 경기 하락국면에서는 소비증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상공인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못함

2) 생산자물가상승률 1% 증가 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0.27%(강창모·전상경, 2021), 0.247%(IBK기업은행, 202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2. 소상공인 부실 현황 진단

가.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및 기간

- 소상공인 부실 현황 진단의 분석 대상은 2017.2~2022.1분기 기간 동안 창업, 운영, 휴·폐업한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63만 2,011개임³⁾

- 부채 식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 정책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업자, 점포 위치가 불확실한 사업자 등을 제거한 후 22.1분기 기준 최근 5년 사업자 63만 2,011개를 추출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업종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규정

■ 분석 자료

- (부채) 부채액은 사업자의 개인부채와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값이며, 개인부채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총잔액, 기업부채는 신용정보원의 대출 총잔액을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임
- (영업이익)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분기별 매출액 자료에 국세청 보정 비율과 통계청 2015년 기준 개인사업체 소분류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

* 사업자별 영업이익 = 신한카드 분기별 매출액 × 국세청 사업자 업종코드별 매출 배율 ×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소분류 업종별 개인사업체 영업이익률

■ 부실·한계 소상공인 정의 및 도출 방법

- 본 보고서에서는 부실과 한계 소상공인을 이자보상배율*과 4분기 연속 여부에 따라 [표 1]과 같이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

3) 전체 표본은 2012.1분기 시점 50만 개 사업자를 랜덤샘플링한 후 다음 t 시점 구성시에는 t 시점 생존사업자와 t 시점 창업한 사업자 중 샘플링하여 2012.1~22.1분기 각 분기마다 50만 사업자를 구성

- (부실 소상공인) 부실 소상공인은 1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사업자
 - (한계 소상공인) 한계 소상공인은 부실이 최소 4분기 이상 연속되는 사업자
-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표 1〉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의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
부실 소상공인	1분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¹⁾ /이자비용 ²⁾ 이 1 미만인 사업자
한계 소상공인	4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사업자

1) 「경제총조사 2015」 소분류 업종별 영업이익률 적용

2) 이자 비용은 대출금리(잔액 기준)으로 $((\text{기업부채} \times \text{중소기업대출이자율}) + (\text{가계담보대출} \times \text{가계담보대출이자율} + (\text{가계신용대출} \times \text{가계신용대출이자율}))/4$ 로 계산

자료 : 신한카드·KCB

나. 부실 지속 기간별 소상공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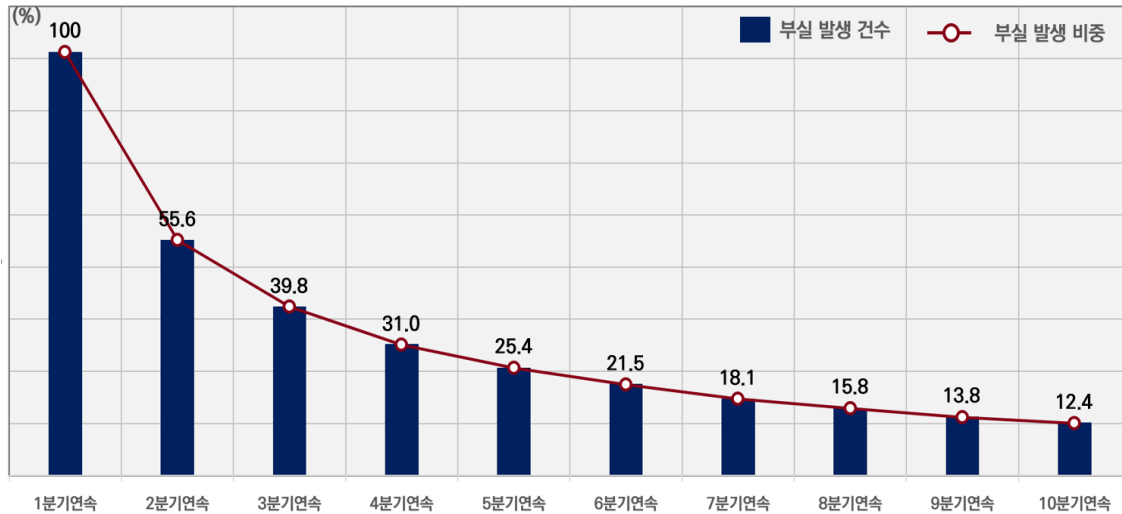
-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 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 수는 24만 9,342개이며, 그 비중은 39.5%임

- 한 사업자가 여러 번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분기 동안 부실이 발생한 횟수는 17.2~22.1분기 동안 43만 9,012번이며, 사업자 수로만 보면 24만 9,342개임
- 이는 사업을 하는 5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1분기에 최소 한 번 이상 부실 상태로 빠지는 사업자가 63만 2,011개 중 24만 9,342개로 약 39.5%라는 것을 의미함

- 부실로 진입한 후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이며, 부실 지속 기간이 길수록 부채액이 증가함

- 다음 분기의 상태변화를 알 수 없는 22.1분기를 제외하고 부실 지속 기간별 사업자 수를 분해한 결과, 1분기 동안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총 40만 5,838번임
- 1분기 부실이 발생한 수를 100으로 보고 연속 부실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1분기 부실 상태 진입 후, 2분기 연속 부실로 가는 경우는 약 55.6%, 3분기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약 39.8%, 4분기 연속 부실인 한계로 진입하는 경우는 약 31%인 것으로 나타남

- 1분기 부실로 진입 후 4분기 동안인 약 1년 동안 부실로 남아있으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약 31%이며, 10분기인 약 2년 반 동안 부실로 남아있으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약 12.4%임

[그림 1] 소상공인 부실 누적 기간별 이동 패턴¹⁾

주1) '17.2분기~'22.1분기 기간 동안 1분기 이자보상배율 1미만 소상공인의 지속 기간별 분해이며, 한 개의 개인사업체가 부실 진입 후 다시 회생될 경우 반복 계산됨

자료 : 신한카드·KCB

-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를 포함하여 정상인 경우와 부실인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과 부채액을 비교해보면, 모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정상인 경우 연평균 매출액은 약 2.35억 원인 반면, 부실인 경우에는 모두 1억 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남
 - 부채액은 정상인 경우 약 0.97억 원인 반면 1분기에만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채액은 약 2.16억 원으로 높으며 부실이 연속될 경우 부채액은 계속 증가함
- 이는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2〉 부실 연속 기간별 매출액 및 부채액

(단위: 억 원)

구분	정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6분기	7분기	8분기	9분기	10분기
연평균 매출액	2.35	0.75	0.60	0.44	0.18	0.17	0.17	0.17	0.16	0.16	0.15
평균 부채액	0.97	2.16	2.53	2.81	3.02	3.22	3.43	3.58	3.66	3.74	3.82

자료 : 신한카드·KCB

다. 유형별 부실 소상공인 현황

■ (업종별) 숙박업과 제조업의 부실과 한계 비중이 높으며 부채액도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한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에서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분기 부실인 비중은 숙박업이 46.4%, 제조업이 41%, 운수·창고업이 40.6%, 자동차·중개·도매업이 3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4분기 연속 부실인 한계 비중은 운수·창고업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업이 29.5%, 제조업 25.9%, 자동차·중개·도매업 22.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계 사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숙박업이 13.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여가서비스업이 6.8억 원, 전문서비스업이 5억 원, 식음료업이 4.9억 원, 제조업이 4.4억 원임
- 부채액은 숙박, 전문·여가 서비스,* 식음료, 제조업이 크지만 부실과 한계 비중은 숙박업과 제조업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숙박업과 제조업의 최근 5년 동안의 경영 환경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임

* 전문서비스는 부동산, 병원, 자동차학원, 광고, 여가 서비스는 실내·외 체육시설, 게임방, 노래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3〉 업종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부실		한계		정상 ¹⁾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제조		41.0%	3.7	25.9%	4.4	74.1%	1.3
자동차·중개·도매		38.8%	2.8	22.8%	3.3	77.2%	1.3
소매		28.7%	2.9	17.2%	3.5	82.8%	1.1
운수·창고		40.6%	3.0	31.3%	4.3	68.7%	0.9
숙박		46.4%	12.0	29.5%	13.8	70.5%	5.3
식음료		14.8%	3.7	7.4%	4.9	92.6%	1.0
서비스	전문	22.9%	4.0	12.1%	5.0	87.9%	1.6
	여가	24.2%	4.8	12.3%	6.8	87.7%	1.3
	생활	20.9%	2.5	10.5%	3.2	89.5%	0.8

주1) 정상은 한계(4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

자료 : 신한카드·KCB

■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매출액 1억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1억 원 이상부터 그 비중은 감소하나 평균 부채액은 큰 폭으로 커짐

- 매출액 구간에 따른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을 보면,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부실 약 36.6%, 한계는 약 22.1%이며, 평균 부채액은 부실 사업자가 약 2.7억 원, 한계 사업자가 약 3.4억 원임
- 정상 사업자의 한계 사업자의 평균 부채액과 비교하면, 1억 원 미만 구간의 한계 사업자는 정상기업에 비해 약 5.7배, 1~3억 원 구간에서는 약 18.2배, 3~5억 원 구간에서는 약 20.9배, 5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약 19.8배 높음

〈표 4〉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부실		한계		정상 ¹⁾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1억 원 미만	36.6%	2.7	22.1%	3.4	77.9%	0.6
1~3억 원 미만	7.2%	9.1	1.6%	23.6	98.4%	1.3
3~5억 원 미만	4.3%	16.4	1.0%	41.8	99.0%	2.0
5억 원 이상	2.8%	23.1	0.6%	57.5	99.4%	2.9

주1) 정상은 한계(4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

자료 : 신한카드·KCB

■ (신용등급별) 사업자 신용도*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감소하나 평균 부채는 증가함

- * 신용 1분위는 신용등급 하위 20%에 속하는 신용도가 가장 낮은 사업자 구간이며, 분위가 올라갈수록 신용등급이 높은 것을 의미함
- 신용도가 가장 낮은 1분위의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은 각각 43.9%, 19.4%이며, 신용도가 가장 높은 5분위의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은 각각 8.7%, 5.9%로 나타남
- 평균 부채액을 보면, 신용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부채액은 증가함
 - 그러나 신한카드에서 제공한 신용도별 부도율*을 보면, 신용도가 낮은 1분위에서 부도율이 높음
- * 신한카드 2019년 기준 부도율⁴⁾ : (1분위) 4.5%, (2분위) 2.6%, (3분위) 1.9%, (4분위) 1.2%, (5분위) 0.6%

〈표 5〉 사업자 신용분위별 부실 소상공인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부실		한계		정상 ¹⁾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신용 1분위	43.9%	2.2	19.4%	3.0	80.6%	0.7
신용 2분위	31.9%	3.2	18.5%	3.8	81.5%	0.9
신용 3분위	27.8%	3.5	17.6%	4.1	82.4%	1.1
신용 4분위	18.1%	4.2	11.9%	4.8	88.1%	1.2
신용 5분위	8.7%	7.6	5.9%	8.7	94.1%	1.6

주1) 정상은 한계(4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
 자료 : 신한카드-KCB

- (추정소득 분위별) 추정소득 구간 1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부실 및 한계 비중과 평균 부채액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에서 부실 및 한계 비중과 평균 부채액이 높음

* 추정소득 1분위는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장 낮은 사업자 구간이며, 분위가 올라 갈수록 소득이 높은 것을 의미함

- 사업자의 추정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부실 및 한계 비중은 각각 21%, 10.7%이며, 2분위는 19.6%, 9.6%, 3분위는 21.4%, 11.3%, 4분위는 25%, 14.4%, 5분위는 31.2%, 19.8%임
-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구간에서 부실 및 한계 비중이 크며, 평균 부채액 또한 다른 분위에 비해 매우 높음

〈표 6〉 사업자 추정소득 구간별 부실 소상공인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부실		한계		정상 ¹⁾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추정소득 1분위	21.0%	1.7	10.7%	2.2	89.3%	0.5
추정소득 2분위	19.6%	1.0	9.6%	1.2	90.4%	0.4
추정소득 3분위	21.4%	1.4	11.3%	1.6	88.7%	0.5
추정소득 4분위	25.0%	2.1	14.4%	2.3	85.6%	0.9
추정소득 5분위	31.2%	7.1	19.8%	8.1	80.2%	2.8

주1) 정상은 한계(4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
 자료 : 신한카드-KCB

4) 12개월 내 60일 이상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 발생 여부로 신한카드에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은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이 포함되어 2019년 자료로 확인함

3.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추이

■ 소상공인 부실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물가로 가정하고, 이 두 변수의 변화가 한계 소상공인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시나리오로 살펴봄

- 경기침체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와 영업이익의 변화가 실제 한계 소상공인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2년 1분기 한계 소상공인 비중과 현재 기준금리 2.50%를 기준으로 베이비스텝(25bp, 0.25%), 빅스텝(50bp, 0.50%), 자이언트스텝(75bp, 0.75%) 할 경우를 가정하고 한계 소상공인 비율 및 수를 추정함
- 한계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이자보상배율에서 영업이익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생산자 물가,* 이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기준금리로 가정함
 - IBK기업은행(2021) 보고서에서는 생산자물가상승률 1% 증가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0.2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상공인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⁵⁾ 소비자 물가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 요인과 소비자 실제 구매력 감소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한국경제연구원(2022)에서는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 이자가 160만 원 증가⁶⁾하는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1 : 베이비스텝)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영업이익 5% 감소 가정 추가)과 부채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2.75%로 상승했을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율과 수를 추정함
- (시나리오2 : 빅스텝)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영업이익 5% 감소 가정 추가)과 부채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3%로 상승했을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율과 수를 추정함
- (시나리오3 : 자이언트스텝)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영업이익 5% 감소 가정 추가)과 부채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3.25%로 상승했을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율과 수를 추정함

5) 연합뉴스, 「작년 국제 원자재가 급등에 생산자물가·기업채산성 큰 부담」, 2022.1.23.

6) 한국경제연구원, 「대출구조 개선[변동 → 고정금리]으로 가구당 이자부담 연 80만원 낮출 수 있어」, 2022.2.15.

■ (시나리오 1: 베이비스텝)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7.7%이며, 영업이익 5%감소 시 약 18.1%로 추정됨

- 분석 기준 시점인 22.1분기에는 기준금리가 1.25%였으며, 이때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 비율이 약 15%임
- 9월 현재 기준금리인 2.5%인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율은 약 17.3%로 추정되며, 2020년 경제총조사 개인사업체 수에 적용하면 약 82만 3,154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의 소상공인 수에 적용하면 약 118만 3,832개 소상공인이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음⁷⁾
- 현재 기준인 2.5%에서 베이비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4만 2,187개, 한계 소상공인은 121만 1,204개로 추정됨
- 영업이익의 5% 감소를 가정한 상태에서 베이비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6만 1,219개, 한계 소상공인은 123만 8,576개로 추정됨

〈표 7〉 베이비스텝(25bp, 0.25%)일 경우 한계 소상공인 추정¹⁾

(단위: %, 억 원, 개)

기준금리		한계 소상공인				추정 한계 소상공인	
		기업 수	비중	평균부채	연평균매출액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영업이익 변동 없음	1.25%	64,799	15.0%	4.58	0.16	713,718	1,026,444
	2.50%	74,747	17.3%	4.56	0.23	823,154	1,183,832
	2.75%	76,611	17.7%	4.55	0.25	842,187	1,211,204
영업이익 5% 감소	1.25%	66,086	15.3%	4.58	0.16	727,992	1,046,973
	2.50%	76,395	17.7%	4.55	0.24	842,187	1,211,204
	2.75%	78,269	18.1%	4.54	0.26	861,219	1,238,576

주1) 22.1 분기 기준으로 총 431,85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주2) 22.1분기 기준금리 1.25%일 때, 정상기업의 평균 부채액은 약 1.28억 원, 연평균매출액은 약 2.1억 원임

자료 : 신한카드·KCB

7) 최근 공표 자료가 2020년으로 통계청 「2020년 경제총조사」 내의 개인사업체 수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중소기업기본통계」 내의 소상공인 수를 적용함

- 중요한 점은 금리가 상승할수록 상대적으로 경영 상태가 양호한 사업자들도 부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계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임
 - 기준금리가 1.25%일 때, 한계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약 4.58억 원, 연평균 매출액은 약 0.16억 원임
 - 기준금리가 상승할수록 평균 부채는 오히려 감소하고 연평균 매출액은 증가함

■ (시나리오 2: 빅스텝)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 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2%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8.6%로 추정됨

- 현재 기준인 2.50%에서 빅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로 인상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6만 4,123개,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 2,751개로 추정됨
- 영업이익 5% 감소를 가정한 상태에서 빅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 사업체는 88만 4,186개,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 1,606개로 추정됨

〈표 8〉 빅스텝(50bp, 0.50%)일 경우 한계 소상공인 추정¹⁾

(단위: %, 억 원, 개)

기준금리		한계 소상공인				추정 한계 소상공인	
		기업 수	비중	평균부채	연평균매출액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영업이익 변동 없음	1.25%	64,799	15.0%	4.58	0.16	713,718	1,026,444
	2.50%	74,747	17.3%	4.56	0.23	823,154	1,183,832
	3.00%	78,430	18.2%	4.54	0.26	864,123	1,242,751
영업이익 5% 감소	1.25%	66,086	15.3%	4.58	0.16	727,992	1,046,973
	2.50%	76,395	17.7%	4.55	0.24	842,187	1,211,204
	3.00%	80,251	18.6%	4.52	0.27	884,186	1,271,606

주1) 22.1 분기 기준으로 총 431,85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주2) 22.1분기 기준금리 1.25%일 때, 정상기업의 평균 부채액은 약 1.28억 원, 연평균매출액은 약 2.1억 원임

자료 : 신한카드·KCB

■ (시나리오 3: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25%로 인상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6%이며, 영업이익 5%감소 시 약 19%로 추정됨

- 현재 기준인 2.5%에서 자이언트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8만 5,010개,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 2,790개로 추정됨
- 영업이익 5% 감소를 가정한 상태에서 자이언트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90만 4,042개, 한계 소상공인은 130만 162개로 추정됨

〈표 9〉 자이언트스텝(75bp, 0.75%)일 경우 한계 소상공인 추정¹⁾

(단위: %, 억 원, 개)

기준금리		한계 소상공인				추정 한계 소상공인	
		기업 수	비중	평균부채	연평균매출액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영업이익 변동 없음	1.25%	64,799	15.0%	4.58	0.16	713,718	1,026,444
	2.50%	74,747	17.3%	4.56	0.23	823,154	1,183,832
	3.25%	80,291	18.6%	4.52	0.27	885,010	1,272,790
영업이익 5% 감소	1.25%	66,086	15.3%	4.58	0.16	727,992	1,046,973
	2.50%	76,395	17.7%	4.55	0.24	842,187	1,211,204
	3.25%	82,166	19.0%	4.51	0.29	904,042	1,300,162

주1) 22.1 분기 기준으로 총 431,85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주2) 22.1분기 기준금리 1.25%일 때, 정상기업의 평균 부채액은 약 1.28억 원, 연평균매출액은 약 2.1억 원임

자료 : 신한카드·KCB

- 영업이익이 5% 감소할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영업이익 변화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모든 금리 구간에서 약 0.3~0.4% 증가하는데, 이는 물가보다 금리의 영향력이 한계 소상공인으로 진입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함
 - 부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물가상승에 의한 비용 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4. 정책 시사점

■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실로 진입한 후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이며, 부실 지속 기간이 길수록 부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 매출액 구간, 신용도, 추정소득에 따라 부실·한계 비중 및 부채 크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특성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실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금리 충격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금리상승으로 부실이나 한계로 진입한 소상공인들은 다시 대출로 영업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특성을 모두 고려한 부실 관리 방안 마련
- 같은 금융위기라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현금흐름 여력(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 부실이 높은 고소득 소상공인(소득 4~5분위)과 저소득 소상공인(소득 1분위)의 부실 원인은 각각 다르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한계·부실 소상공인 간에도 업종, 부실기간, 부채규모, 매출규모, 신용등급, 소득수준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원인과 현상이 나타나므로, 세분화된 소상공인 대상 특별 적용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들도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

-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면, 금리가 상승할수록 매출액이 높고 부채가 적은 사업자들도 한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금리가 2.50%에서 0.75%p 증가하여 3.25%가 될 경우, 개인사업체 기준으로는 약 6만 개, 소상공인 기준으로는 약 9만 개가 더 한계 상황으로 빠질 수 있으며, 평균 매출액이 약 8,000만 원 이상에서 위험해질 수 있음
- 금리 1%p 증가할 경우, 약 8~12만 사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함
- 금리와 물가 변수만 고려하였음에도 경영 상황이 양호한 사업자들도 부실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지원으로 부실 상태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부실·한계 소상공인의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자보상배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나,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통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 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임
- 영업비용 중 소상공인에 크게 부담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인건비) 유연한 고용정책 마련과 업종과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스마트 기술도입을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이 필요함
 - (임대료) 임대료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와 비대면 경제 시대에 맞춰 공간 변화와 활용이 용이하게 하고, 유동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

참고자료

[국내 문헌]

강창모, 전상경(2021),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의 영향과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2022),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리스크 점검 및 영향」.

[기사 인용]

연합뉴스, 「작년 국제 원자재가 급등에 생산자물가·기업채산성 큰 부담」, 2022.1.23.

한국경제연구원, 「대출구조 개선[변동 → 고정금리]으로 가구당 이자부담 연 80만원 낮출 수 있어」, 2022.2.15.

[인터넷 자료]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은행(<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자료 제공]

신한카드(<https://www.shinhancard.com/>)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kcb4u.com>)

KOS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최세경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